

광주·전남 '3고 악재'에 내수 부진...연말 경기 불투명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 광주·전남 '마이너스'...광주 감소율 최고
서비스업 생산지수 광주 3.1%·전남 3.9% 증가...전국 평균 밑돌아
건설 수주액 광주 32.6%·전남 1.2% 감소...원자재 수급 불안정 영향

올해 3분기 소비 지표의 하나인 소매판매액 지수가 광주·전남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도 하위권에 들었다. 높은 물가에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에 연말 생산과 투자 부문의 지역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같은 기간 광주 광공업 생산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6배 넘는 수준으로 뛰었지만, 전남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담겼다. 우선 올해 3분기 시도별 소매판매액 지수를 보면 광주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2% 감소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소비가 줄어든 시·도는 모두 9곳이었는데, 전남 소매판매액 지수도 1.8% 감소하며 여기에 들었다.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세는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지속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증가율이 전국 하위권에 들었다.

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광주는 3.1%, 전남은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지역 증가율은 전국 평균(5.9%)을 밑돌았고 제주(8.3% ↑), 인천(8.0%)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3분기 증가율은 광주는 전분기(3.7%)보다 감소했고, 전남은 전분기와 같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지만, 지역 소비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광공업 생산은 광주·전남 희비가 엇갈렸다. 3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보다 광주는 8.3% 증가했지만, 전남은 2.5% 감소했다. 3분기 들어 광공업 생산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지역은 충남(-4.7%)과 서울(-3.6%), 전남, 충북(-1.8%), 제주(-1.3%), 강원(-0.3%) 등 6개 시도이다. 전남은 광공업 생산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끝내고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광주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분기 증가율(1.9%)보다 크게 늘며 전국 평균 증가율(1.3%)을 크게 웃돌았다. 호남통계청 측은 광주는 자동차 생산이 늘었지만, 전남은 주력 산업인 화학제품 생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은 3분기 수출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입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역 수출액은 광주 47억1000만달러·전남 132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광주는 19.2%, 전남은 14.1% 늘며 전국 평균 증가율(13.0%)을 웃돌았다. 광주는 전자제품의 하나인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이 51.4% 뛰었지만, 냉장고 수출은 42.8% 감소했다. 전남은 경우 수출이 81.0% 뛰고, 인조 플라스틱 제품 등 수출은 24.5% 감소했다. 수입액도 광주 38.4%·전남 39.0% 증가하며 전

국 증가율(23.1%)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의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이유로 건설 수주액은 광주가 32.6%, 전남은 1.2% 감소했다. 광주 건설 수주액은 3분기 4799억원이었는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줄었다. 전남 수주액은 2조6140억원으로, 토목공사는 늘었으나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김태훈 호남통계청 지역통계과 팀장은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 소매점과 식·음료 부문 소비가 지역에서 줄었다"며 "광주의 경우 반도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생산재인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광공업 생산이 줄어든 전남의 경우 화학 완제품 수출이 줄어들었기에 원재료 생산도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장 체험 하고 나눔 기쁨도 느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기운데)는 21일 '김치의 날' (11월22일)을 앞두고 하나로마트 무안 남약점에서 우수고랭지 22명을 초청해 순천농협 절임 배추와 김치소를 재료로 활용한 '국산김치' 민족의 힘이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담긴 김치 김치는 장흥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된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국세청,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24일까지 광주송정역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한국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광주송정역에서 '2022년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의 수상작을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으며, 유망인구가 많은 지역 대표 철도역인 광주송정역에서 열린다.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나의 세금 이야기', '일상생활 속의 세금 사용

으로 행복한 세상',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세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납세의식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영석 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세금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에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미래와 생활이 세금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실납세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경제 발전·상공업 진흥 '광주상공대상' 선정

광주상의, 경영·고용부문 등 5명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제10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제10회 광주상공대상에는 ▲경영우수부문 마찬호 남양건설(주) 대표이사 ▲고용우수부문 김명선 금호타이어(주) 생산기술본부장(전무) ▲기술혁신부문 노정규 현대오일텍(주) 대표이사 ▲지역공헌부문 정혁준 삼성전자(주) 광주지원센터장(상무) ▲노사상생부문 조순만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장(상무)이 선정됐다. 경영우수부문 대상 마찬호 대표이사는 64년 역사의 대표적 지역 건설 기업인 남양건설을 2011년부

터 경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매년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우수부문 김명선 본부장은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금호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산업을 선도하고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매출과 근로자 4720여명의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기술혁신부문 노정규 대표이사는 2002년 창업 이래 수배전반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다수의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주 무대인 고전압(154kV) 변전소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변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공헌부문 정혁준 센터장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1989년 설립된 이래 지난해 4조4000억원의 매출과 2800여명의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 지역에 매년 12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사상생부문 조순만 공장장은 매일유업이 유제품 가공 분야에서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관리자가 만드는 간식 나눔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사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0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은 22일 오후 4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친환경 캠페인 확산...일회용기 대신 재생용기 사용

롯데백화점·이마트 등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친환경 영업을 강화한다. 롯데백화점은 24일부터 매장 내 카페·식당·식음료 매장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규제 대상이 아닌 백화점 MVG(우수고객) 공간에서도 이달 1일부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모든 점포에서 대형 현수막·보냉 가방 등 폐기물로 제작한 지갑 등을 소비자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 '리얼스'(RE: EARTH)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친환경 사업은 내년 설 명절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마트도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맞춰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운동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2주간 텀블러와 물병 100여 종을 최대 40% 할인한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종이와 스테인리스 소재 빨대도 20% 할인한다.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생수가 비닐 딱지를 없애고 장바구니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9.50 (-24.98)
↓ 코스닥	718.57 (-13.35)
↑ 금리(국고채 3년)	3.837 (+0.050)
↑ 환율(USD)	1354.70 (+14.40)

토지 매매 (담양)(장성)

▶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

■ **임야 : 7,500평**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